프랑스의 농업과 농정*

오 현 석
(지역아카데미 대표이사)

1. 프랑스의 농업 여건과 현황

1.1. 농림수산업과 식품산업의 위상

프랑스의 농림수산업 생산액은 2011년 328억 유로 규모로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그치고 있다. 2000년 2.5%에서 매년 0.1%씩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농업부문과의 연계성이 높은 식품산업 생산액을 합해 추산하는 '농식품 생산액'은 629억 유로(식품산업 301억 유로)로 국내 총생산 대비 농식품 산업 비중은 3.2%에 달한다. 1980년에는 농림수산업과 식품산업의 경제적 비중이 각각 4.2%와 2.6%로서 농식품 산업 비중이 6.8%에 달했으나 지난 30여년(1980~2011년) 사이 비중이 절반 이상 감소한 것이다. 식품산업보다 농림수산업의 경제적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는 농산물 가격의 상대적 하락에 기인한 것이며, 불변가격 기준으로는 농림수산업 부가가치의 증가속도는 경제 전체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 본 내용은 프랑스 농림부의 GraphAgri2012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음(ohssnu@daum.net).

표 1 농림수산 및 식품산업 생산액추이(1980–2011)

단위: 10억 유로, 경상가격 기준

연도	1980	1990	2000	2011(p.)
농림수산업	18.7	34.9	36.6	32.8
제조업	98.6	187.4	229.0	224.6
– 제조업 중 식품산업	11.6	22.3	26.5	30.1
건설	26.0	61.7	66.6	110.1
도소매업, 운송, 서비스	252.0	635.8	958.5	1421.5
국내총생산	395.3	919.8	1,290.7	1789.0

자료: Insee – Comptes de la Nation.

표 2 농림수산업 및 식품산업 비중

단위: %

연도	농림수산업	식품산업	농림수산업+식품산업
1980	4.2	2.6	6.8
1985	3.9	2.4	6.3
1990	3.4	2.2	5.6
1995	3.0	2.1	5.1
2000	2.5	1.8	4.4
2005	2.0	1.7	3.7
2011(p.)	1.6	1.6	3.2

자료: Insee – Comptes de la Nation.

고용측면에서 농림수산업과 식품산업은 2011년 현재 143.1만 명을 고용함으로써 전체 고용인구의 5.6%를 담당하고 있다. 농림수산업이 84.9만 명, 식품산업이 58.2만 명을 고용해 각각 3.3%와 2.3%의 고용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표 3 농림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고용인구 비중

단위: 천명, ETP*

연도	1990	2000	2005	2011(p.)
농림수산업	1,300	961	898	849
제조업	4,459	3,863	3,523	3,085
– 제조업 중 식품산업	552	567	560	582
건설	1,703	1,463	1,612	1,841
서비스	15,400	18,046	19,083	19,569
국내총고용	22,862	24,332	25,116	25,343

자료: Insee– Comptes de la Nation. (*ETP : 풀타임고용기준으로 환산한 고용인력 단위임).

이와 같은 농식품 부문의 고용비중은 1980년 12.1%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며, 식품산업에 비해 농림수산업의 고용비중이 훨씬 빠른 속도로 감소했다. 농림수산업의 고용비중은 1980년 9.5%에서 2011년에는 3.3%로 1/3 수준으로 축소된 반면, 식품산업은 1980년 2.5%에서 2011년에는 2.3%로 약간 감소하는데 그쳤다.

표 4 농식품 부문 고용비중 변화추이(1980–2011)

단위: %

연도	농림수산업	식품산업	농식품 산업 전체
1980	9.5	2.5	12.1
1985	8.3	2.6	10.9
1990	6.6	2.4	9.0
1995	5.6	2.4	7.9
2000	4.8	2.3	7.1
2005	4.3	2.2	6.5
211(p.)	3.3	2.3	5.6

자료: Insee – Comptes de la Nation.

1.2. 농지

전체 국토면적의 54%가 농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24%는 산림지로 이용되고 있다. 농지는 경지와 초지, 과수원 등으로 구분되는데, 2010년 전체 농지 29,147 천ha 가운데 62.7%가 작물생산을 위한 경지로 이용되고 있다.

표 5 농지이용 현황

단위: 천ha

구분	1950	1980	1990	2000	2010(p.)
경지	19,137	17,472	17,774	18,308	18,267
초지	13,221	12,850	11,437	10,251	9,748
과수원	2,050	1,442	1,385	1,294	1,131
계	34,407	31,744	30,596	29,854	29,147

자료: 프랑스 농림부, Agrest "GraphAgri 2012".

경지 이용현황을 보면 곡물생산이 65.1%로 가장 많고, 사료작물, 채소 등 기타작물, 휴경지 순으로 이용되고 있다. 2006년 이후 전체 농지의 1%정도가 산업용지 또는 주택지, 도로 등의 부지로 전환됐으며, 연평균 0.3%의 비율로 농지가 감소되고 있다.

표 6 경지이용 현황

단위: 천ha

구분	1950	1980	1990	2000	2010(p.)
곡물	9,054	10,497	11,660	11,549	11,893
휴경	1,405	221	233	1,230	645
사료작물	6,435	5,292	4,759	4,496	4,766
기타	2,242	1,461	1,123	1,033	963
계	19,137	17,472	17,774	18,308	18,267

자료: 프랑스 농림부, Agrest "GraphAgri 2012".

1.3. 농업인력

농업인구는 전업 및 겸업 활동을 포함하여 2010년 966천명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는 2000년 이후 지난 10년간 26.7% 감소한 것이며, 20년 전인 1990년 이후로는 52%가 감소한 것이다. 농업인구 가운데 59%는 경영주나 배우자(공동경영주)로 활동하고 있으며, 배우자 외 가족구성원이 20%, 고용노동이 21%를 차지하고 있다.

표 7 농업인구의 변화추이

단위: 천명

연도	1988	2000	2010
경영주/배우자(공동경영주)	1089	764	604
배우자 외 가족구성원	788	391	207
고용노동	143	164	155
계	2020	1319	966

자료: 프랑스 농림부, Agrest "GraphAgri 2012".

농업경영주의 연령분포를 보면 전체 농가의 52%가 경영주의 나이가 40-55세인 경영체이며, 55세 이상은 전체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40세 미만은 전체 경영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년층의 경우 농업부문에 진입하는데 필요한 투자문턱이 여전히 높아 비중이 낮은 편이다. 소농을 제외한 중농 및 대농층의 경우에는 40대(34.0%), 50대(28.4%), 40세미만(23.2%), 60세 이상(9.9%)의 순으로 중간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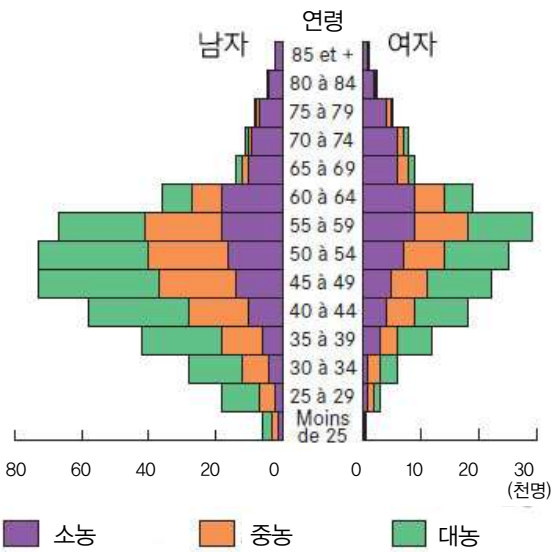
표 8 농업경영주 연령분포(배우자포함, 중농 및 대농)

단위: 천명

연령	1988	2000	2010
40세 미만	195	162	98
– 이 중 여성	13	26	17
40–49세	128	151	139
– 이 중 여성	12	27	31
50–59세	204	136	144
– 이 중 여성	27	35	38
60세 이상	82	34	42
– 이 중 여성	13	16	17
계	609	483	423
– 이 중 여성	65	104	103

자료: 프랑스 농림부, Agrest "GraphAgri 2012".

그림 1 농업경영주 연령분포



자료: 프랑스 농림부, Agrest "GraphAgri 2012".

1.4. 농업경영체

프랑스의 전체 농업경영체 수는 2010년 49만개로 이 가운데 2/3가량이 전업농으로 분류된다.[1] 농업경영체 수는 1990년 이후 절반가량 줄었으며, 2005년 이후 연평균

3.6%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전업농층의 감소율은 연평균 3%정도로 상대적으로 낮다. 전업농은 전체 농경지의 92%를 관리하고 있으며, 경영체당 평균 경지면적은 증가 추세에 있다.

표 9 농업경영체 변화추이

단위: 천

구분(*)	1988	2000	2010
소농	477	278	178
중농	393	218	151
대농	147	169	161
계	1017	664	· 490

주*: 프랑스의 중소 및 대농구분은 경지면적 등 경영규모에 준한 구분에서 최근 경제적 위상에 따른 분류체계로 바뀌어, 농업경영체 규모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있다.
자료: 프랑스 농림부, Agrest "GraphAgri 2012".

2007년 농가당 평균경지면적(전업농 기준)은 77ha로 1988년 42ha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전업농 가운데 경지규모가 100ha 미만의 경영체는 2005년 이후 9% 감소한 반면, 100ha 이상의 농가 수는 4% 증가하였다. 50-100ha 규모의 농가비중은 전체의 약 1/3 정도로 농업경영체 중 가장 두터운 층을 형성하고 있다.

표 10 농업경영체 변화추이

단위: 천

구분	1988	2000	2010
개인농	946.1	537.6	339.9
법인농(다양한 회사형태)	65.5	123.6	146.6
기타	5.2	2.6	3.5
계	1016.8	663.8	490.0

자료: 프랑스 농림부, Agrest "GraphAgri 2012".

1) 전업농(exploitation professionnelle)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농가를 말함. 첫째, 경영규모가 유럽경영규모단위(UDE) 기준 8 UDE(밀 재배기준 12ha)이상, 둘째, 농업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이 연간 최소 0.75 UTA(농업노동투입단위) 이상인 농가(연간 노동시간의 3/4 정도)를 말함. 전업농은 은퇴를 앞두고 경영규모를 축소하기 시작하며, 이 경우 비전업농(exploitation non-professionnelle)로 분류됨.

표 11 규모별 농업경영체 분포(2007)

단위: 천

구분	경영체수	경영체수 비중(%)	경지면적 (1000 ha)	경지면적 비중(%)
•전업농	326.2	100.0	25,210.3	100.0
10 ha 미만	34.9	10.7	142.0	0.6
10 – 25 ha	38.2	11.7	664.2	2.6
25 – 50 ha	64.8	19.9	2,419.8	9.6
50 – 100 ha	100.2	30.7	7,243.4	28.7
100 – 200 ha	69.5	21.3	9,539.2	37.8
200 ha 이상	18.7	5.7	5,201.7	20.6
•비전업농	180.7	100.0	2,145.6	100.0
10 ha 미만	125.6	69.5	411.0	19.2
10 ha 이상	55.1	30.5	1,734.5	80.8

자료: Agreste – Enquête structure.

전 품목에 걸쳐 경영체수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감소추세는 품목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낙농과 포도재배 농가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반면 곡물분야는 비교적 감소세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12 품목별 농업경영체수 변화추이

단위: 천

품목	1988	2000	2010
곡물	175	126	119
포도	132	98	70
복합영농	199	100	61
육우	99	80	60
양	93	82	56
낙농	175	76	50
돼지, 가금	54	40	30
과일	33	24	19
화훼 및 원예	34	19	15
복합축산	25	18	11
계	1,017	664	490

자료: 프랑스 농림부, Agrest "GraphAgri 2012".1.2. 프랑스의 농산물 수급과 교역.

1.2.1. 주요 농산물 수급

프랑스의 밀 생산량은 2011년 33,988 천 톤으로 2010년에 비해 4.6% 감소했다. EU 전체 밀 생산량의 26%를 차지하는 EU 최대 밀 생산국인 프랑스는 1980년 이래 밀 생산량이 수확고 증대 등에 힘입어 밀 생산량이 46% 증가했으나, 최근 들어 하향 정체 국면을 보이고 있다. 국내 생산량의 절반 정도가 사료용 및 식용, 산업용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산업용 에너지 자원으로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표 13 밀 수급

단위: 천 톤

구분	1990/91	2000/2001	2010/2011	2011/2012(p)
초기재고	4,785	5,523	3,424	2,930
생산	31,417	35,665	35,609	33,988
– 수집	27,849	31,775	32,765	30,762
– 자가소비	3,568	3,890	2,844	3,226
수입	144	264	1,034	300
공급계	36,346	41,452	40,067	37,218
기말재고	5,915	3,392	2,930	2,085
국내소비	13,202	19,187	16,782	18,433
– 사료용	7,997	12,029	7,225	8,983
– 식량 및 가공용	5,205	7,158	9,557	9,450
수출	17,229	18,873	20,355	16,700

자료: 프랑스 농림부, Agrest "GraphAgri 2012".

밀 수출은 EU 회원국이 40%이며, 나머지 60%는 EU 이외 국가로 수출되고 있다. 대부분 사료작물로 이용되는 옥수수 생산량은 2011년 15,913천 톤으로 전년 대비 13%

표 14 쇠고기 수급

단위: 천 톤(TEC)

구분	1990	2000	2010	2011(p)
생산량	1,912	1,768	1,795	1,864
– 이 중 송아지	313	307	260	271
수입	433	347	403	365
수출	618	555	530	584
국내소비	1,685	1,561	1,677	1,652
– 1인당 소비량 (kg)	29.8	25.7	25.9	25.0
– 자급률(%)	113.5	113.3	107.0	112.8

자료: 프랑스 농림부, Agrest "GraphAgri 2012".

증가했다. 프랑스는 EU 전체 옥수수 생산량의 25%를 차지해 밀에 이어 EU 최대 생산국으로 부상했다.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국내 사료용으로 소비하고, 나머지 절반정도를 EU 등 인근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프랑스의 쇠고기 생산량은 2010년에 비해 4% 증가한 1,864 톤(TEC)으로 수출호조와 가격상승에 힘입어 쇠고기 생산이 증가세를 나타냈다. 반면 국내 소비량은 하향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인당 쇠고기 소비량도 2000년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보여 2000년 1인당 소비량은 25.7kg에서 2011년에는 25.0kg으로 감소했다.

표 15 돼지고기 수급

단위: 천 톤(TEC)

구분	1990	2000	2010	2011(p)
생산량	1,727	2,311	2,319	2,285
수입	507	528	601	589
수출	223	654	762	759
국내소비	2,011	2,191	2,157	2,115
- 1인당 소비량 (kg)	35.4	36.1	33.3	32.5
- 자급률(%)	85.9	105.4	107.5	108.0

자료: 프랑스 농림부, Agrest "GraphAgri 2012".

돼지고기 생산량도 2011년 2,285천 톤으로 2010년 대비 12% 증가했으나 국내 소비량은 완만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1.2.2. 농식품 교역

프랑스의 농식품 교역량은 2011년 수출 560억 유로, 수입 441억 유로로 1101억 유로 규모에 달한다.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포도주, 곡물, 유제품, 육류 등의 순이며, 수입품목으로는 육류, 수산물, 과일 순이다. 주요 수출대상국은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순이며 수입대상국은 네덜란드, 스페인, 벨기에, 독일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식품 교역대상국이 대부분 EU 회원국이나, 수출의 경우 중국과 일본이 10위와 11위를 보이고 있다.

표 16 농식품 수입

단위: 백만 유로

구분	1990	2000	2010	2011(p)
육류	2,990	2,875	3,915	4,141
생선 및 갑각류	1,800	2,592	3,561	3,725
과일	2,044	2,331	3,337	3,250
채소 및 과일 가공품	292	1,844	2,792	3,037
음료 및 포도주	1,103	1,689	2,680	3,017
우유 및 유제품	941	2,156	2,674	2,973
곡물 가공품	894	1,425	2,321	2,536
채소	1,205	1,522	2,387	2,249
계	20,264	28,033	40,952	44,100

자료: 프랑스 농림부, Agrest "GraphAgri 2012".

2. 프랑스의 최근 농정[2)]

2.1. 1970년대 이후 프랑스 농정의 변화

1960년대 프랑스 농업은 1961/62년의 농업기본법 제정과 공동농업정책의 시행으로 시장 확대와 가격지지라는 양호한 환경 속에서 도농 간 소득균형을 목표로 한 농업경영구조의 개선과 생산성향상 등에 있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서면서 서유럽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확산된 저성장, 고실업이라는 경제 환경 속에서 불황국면이 장기화되고 1980년을 전후에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인구가 증가하는 등(Renaissance rurale) 농업의 고용유지기능이 강조되면서, 농업정책의 목표와 정책수단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2) KREI가 의뢰한 연구보고서 '프랑스의 농업부문재정투자분석' 에 기 발표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며, 최신 통계수치를 반영한 것임.

표 17 농식품 수출

단위: 백만 유로

구분	1990	2000	2010	2011(p)
포도주 등 주류 및 음료	6,012	8,905	11,402	12,666
곡물	5,020	4,255	5,800	7,799
우유 및 유제품	2,888	3,992	5,376	5,862
육류	2,253	3,142	3,120	3,506
곡물 가공품	616	1,450	2,667	3,034
기타 식품류	824	1,342	2,146	2,305
설탕 및 설탕류	1,536	1,849	1,856	2,161
채소류	917	1,345	1,822	1,869
계	28,217	37,328	49,107	56,051

자료: 프랑스 농림부, Agrest "GraphAgri 2012".

1970년대 초 시행된 조건불리지역 농업에 대한 지원정책과 영농후계자정책(DJA)은 이와 같은 농업정책의 목표와 수단들이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사례로서 이후 프랑스 농업정책은 프랑스사회에서 농업이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의 변화에 따라 정책목표와 수단들을 현대화시켜 왔다. 이와 함께 프랑스 주요농업정책들이 유럽공동농업정책의 범주 속에서 시행되는 현실을 고려해 프랑스는 EU 농정개혁을 주도함으로써 국내현실과 유럽현실간의 괴리를 좁히는 노력을 펴왔다.

1980년과 1999년 농업기본법 개정은 이와 같은 농업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서, EU 공동농업정책의 개혁에 따라 1980년대 우유쿼터제의 도입, 1992년 이후의 농업지원방식의 변화(시장지지에서 직접소득보상으로)와 환경농업규정(Mesures agro-environementux)의 강화 등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여기에는 1960-70년대 공동농업정책이 '생산성주의(productivisme)'에 기초한 결과 농산물과잉생산, 농업발전의 지역 간 불균형,[3] 일부 농촌지역에서의 농촌공동화의 진행과 사회적 관계망의 파괴, 과도한 집약적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 광우병 사태를 계기로 한 식품안전성문제를 초래하였다는 국민들의 비판이 배경이 되고 있다.

프랑스는 유럽 공동농업정책의 큰 테두리 내에서 추진해 온 기존의 농정이 공동농업정책의 각종 시책들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결과, 경영규모 확대를 꾀하는 경영체들의 개별전략만을 도와준 결과를 가져왔으며, 국토의 균형적 발전의 왜곡, 환경적 가치

3) 지역에 따라 농업소득 규모가 최고 20배 차이가 나는 현실.

의 파괴, 농촌지역에서의 고용후퇴를 대가로 농업생산과 경영체들이 지역적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가져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EU의 '아젠다 2000'을 앞두고 마련된 1999년 새 농업기본법은 농업과 사회와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고, 농업의 세 가지 사회적 역할(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기능)을 농업정책이라는 공공개입수단을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과 정책수행 메커니즘을 현대화하는 작업을 본격화했다. 새 기본법이 마련한 대표적인 정책수단인 '경영국토계약 (CTE/Contrat territorial d'exploitation, 이후 CAD로 개칭되었으며, EU의 농촌개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됨)'은 농업경영체에 대한 공공지원을 계약방식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농업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보상체계를 새롭게 설계한 것이다.

2.2. 최근 농정동향

프랑스 농정은 2002년 우파정부 등장 이후 수립된 2003년 정부개혁전략(SMR/Stratégie ministrielle de réforme)의 연장선상에서 농정 근대화를 위한 전략과제(FRM/Feuille de route de modernisation)를 설정해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의 농림수산부'로 도약하는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프랑스 농정의 전통적 임무는 농업개발과 농업(연구)교육 분야에 집중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식품안전성, 환경, 농촌지역개발, 동물후생, 자연환경의 보전과 관리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농정에 대한 이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요구는 농정개혁의 가속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농정이 공공정책의 전체 전략과 부합할 것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농림부는 FRM에서 프랑스 농업의 미래비전을 '경쟁력 있고, 생존 가능한(viable) 농업발전'으로 내세우고, 다음과 같은 전략과제들을 2006년1월 농업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명시하고 있다.

2.2.1. 2006년 농업기본법의 주요 전략과제

(1) 농림수산업의 경제적 위상의 유지

프랑스 농업은 국민경제에서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EU의 확대, 세계시장에 대한 대응을 고려할 때 기업적 논리의 수용, 시장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기술혁신 등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다. 2003년 공동농업정책 개혁은 두 개의 새로운 규정(단일직불제와 이행조건준수)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프랑스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농업과 식품산업분야의 발전을 주도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식량생산부문과 관련해서는 시장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하며, 농가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들을 장려하는 한편, 비(非)식량 부문의 농업생산과 관련해서는 농림업의 바이오매스를 이용해 에너지, 환경, 경제적 측면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촌지역에서 농업활동은 경제활동의 개발, 전후방 연관 산업 부문에서의 고용의 유지와 창출, 근거리 사회적 활동망의 유지에 기여하도록 한다. 자연자원 보호는 농업개발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으므로, 농민들로 하여금 오염을 감소시키는 농법의 채택, 생물다양성의 유지, 농촌경관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농업활동을 유도하도록 한다.

(2) 식품안전성, 동물후생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부응

지난 20년간 계속해서 제기된 식품안전성 문제는 이 분야에서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프랑스는 식품위생안전청(Agence Francaise de Securité Sanitaire des Aliments, AFSSA)을 설립하고, 식품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식품위생 위험의 인지와 예방 및 감독체계의 개발, 도출된 위험요소들에 대한 대응력 강화, 위험관리 활동역량 개선 등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식품위생 및 식물병충해방제 정책은 현재와 미래의 위험평가 및 인지, 감독 예방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프랑스의 이와 같은 정책은 국제 및 EU차원에서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축산부문에서 동물후생에 대한 관련규정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행조건과 결부된 보조금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3) 연구, 교육, 개발활동의 시너지 극대화

농업교육분야는 특수한 교수법을 발전시켜왔으며, 농업과의 밀접한 연관 속에서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을 결합해 발전시켜오고 있다. 프랑스 농업인들의 교육수준은 최근 수십 년간 대폭 향상되고 있으며, 1970년대 말 청년영농정착보조금(DJA)을 지원받은 25%만이 전문학사(niveau 5, CAP/BEP)학위를 보유했으나, 2004년도에는 85% 이상이 대학입학자격학위(niveau IV)를 보유하고 있다. 프랑스 농업경영주의 50% 이상이 각급 농업관련 정규교육과정 이수자들이며, 이는 유럽 평균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임. 향후 유럽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인구의 노동력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대학교육은 전국 7개 지역에 농업생명 및 환경 분야 거점 연구교육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기술 고등교육은 단순히 학생들을 수용하는 공간에서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음. 이들 기관들은 농촌지역

개발정책의 파트너로서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다. 2006년 농업기본법은 이들 기관들로 하여금 공동연구 및 개발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프랑스 농림부의 연구개발국(DGER)에 농업 및 농촌개발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그림 2 농업연구와 개발, 교육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농정체계

자료: 프랑스 농림부(www.agriclture.gouv.fr).

(4) 농촌 및 산림공간에서의 자연자원의 보전과 관리이용

프랑스의 농촌공간은 전체 국토면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농업활동 비중이 높고,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2000년 이후 프랑스 정부는 농촌개발정책을 정책우선순위에 놓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농촌공간에서의 경제, 사회활동이 다양해지면서 거주인구가 회복국면에 놓여있으나,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여전히 인구와 경제활동이 후퇴하고 있다. 프랑스의 농촌지역개발정책은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공간에서의 경제개발 및 고용창출, 농촌 어메니티의 개선, 환경 및 자연공간의 보존에 주력하고 있다. 2005년 2월에 제정된 농촌지역개

발에관한법(LDTR/loi relative au développement des territoires ruralux) 이후 추진하고 있는 '농촌특성거점지역개발(l'initiative des poles d'excellence rurale)' 정책은 농촌개발정책의 새로운 수단이 되고 있다. 유럽농촌개발기금(FEADER)으로부터 지원받는 2007~2013 농촌개발프로그램은 약 120억 유로가 농촌개발프로그램에 투자될 계획이다. 프랑스 전체국토면적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은 국토이용의 측면에서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농촌지역 경제개발의 원동력, 환경보호 및 재해예방,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림은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재생가능자원이며, 임업부문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건축분야에서 생태적인 재생가능 소재로서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2.3. 농업예산 투자방향 및 내역

(1) 농업에 대한 공공기여(Concours publics l'agriculture)

프랑스는 '농업에 대한 공공기여'라는 이름으로 농업부문에 대한 공공부문의 지원예산 총액을 매년 파악해 보고서 형태로 출간하고 있다. '농업부문에 대한 공공 기여액'은 농림부 예산 중 수산 및 양식부문을 제외한 나머지와 농림부가 관리하는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예산, 농림부 예산과 연계돼 같은 목적으로 투입되는 다른 부처의 관련예산 및 EU의 공동농업정책 예산 등이 포함된다. 중앙정부의 농업관련 예산은 농림부의 일반예산(Budget général)이 주가 되며, 이외에도 다른 중앙부처(내무부, 교육연구부, 노동부 등)의 농업관련예산이 포함된다. 지방정부의 농업관련예산은 3~4년 단위로 파악되며,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응편성된 것이 대부분이다. 지방정부간 통일된 분류체계가 없어 정확한 통계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나 그 규모는 중앙정부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EU의 공동농업정책 예산은 프랑스 농림부문 투자액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시장지지와 관련된 제1축 예산과 농촌개발과 관련된 제2축 예산으로 대별된다. 농림부가 관리하는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산림기금(Fonds forestier national), 용수개발기금 (Fonds de développement des adductions d'eau) 및 종마 및 양마(養馬)기금 (Fonds national des haras et des activités hippiques) 등이 있다. 농업에 대한 공공 기여액은 기능별로 네 가지 범주[4]로 나눠지며, 각 범주별로 하위범주가 설정돼 편성되고 있다. 이는 농림부의 예산구조와 일치하며, EU 공동농업정책의 두 가지 축의 예산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4) 농업 및 농촌지역, 산림, 교육 및 연구, 일반 행정.

표 18 농업에 대한 공공기여

단위: 백만 유로

	구분	2005	2011	2012	2012/2011 (%)
1	**농업 및 농촌지역**	12,672.5	11905.6	11649.8	-2.1
11	**시장 및 농업소득**	10,068.7	9933.3	9786.7	-1.5
111	시장조절	1,364.3	475.9	418.3	-12..1
112	품목연계지원	7,712.6	1060.4	889.6	-16.1
113	공급조절	586.7	99.1	32.7	-67.0
114	단일직불	0.0	7170.4	7291.0	1.7
115	품목조직육성	136.2	211.8	208.1	-1.8
116	품질개선 및 시장촉진	80.0	106.2	113.2	6.6
117	식량지원	89.9	100.9	101.8	0.8
118	생산위험관리	98.9	708.5	732.0	3.3
12	**농촌개발**	2,229.3	1741.5	1635.6	-6.1
121	영농정착, 환경오염관리	459.3	294.4	381.8	29.7
122	영농은퇴	89.1	65.6	43.9	-33.2
123	조건불리지역 보상	527.5	582.7	570.5	-2.1
124	농업-환경시책	552.2	528.4	417.8	-20.9
125	농촌공간정비 및 보호	365.9	182.4	139.4	-23.6
126	농산물가공 및 상품화	49.5	40.1	37.9	-5.3
127	마필산업	185.8	47.9	44.3	-7.5
13	**동식물 위생안전**	374.5	230.8	227.5	-1.4
2	**산림**	353.5	379.1	370.2	-2.3
3	**연구교육**	2,139.8	2395.7	2397.7	0.1
311	기술교육	1205.9	1271.8	1269.0	-0.2
312	현장실습 및 평생교육	14.4	32.2	30.7	-4.7
314	대학교육	207.2	261.8	266.5	1.8
315	연구 및 개발, 기술이전	712.4	829.9	831.5	0.2
4	**일반행정**	1,319.7	1317.3	1316.9	0.0
	총계	16,485.5	15997.6	15734.7	-1.6

자료: 프랑스 농림부, Concours à l'agriculture en 2012..

참고문헌

프랑스 경제통계원(Insee) - Comptes de la Nation.
프랑스 경제통계원(Insee) - Recensement de la population.
프랑스 농림부, Agrest - Enquêtes structure 2005 et 2007, recensements agricoles 2000.
프랑스 농림부, Agrest - GraphAgri 2012.
프랑스 농림부, Concours à l'agriculture en 2012.

참고사이트

프랑스 농림부(www.agriclture.gouv.fr).